

[제2025-01차] 머니투데이방송 시청자위원회 회의록

1. 일시: 2025년 5월 30일(금) 오후 2시
2. 장소: 머니투데이방송 4층 대회의실
3. 참석위원: 박호진(위원장), 서성완(부위원장), 이호섭, 구강모, 조은아, 김윤정, 임수신 (총 7명 전원 참석)
4. 회의 안건:
 - 시청자 권익 보호 및 방송 콘텐츠의 공정성·신뢰성 제고를 위한 민원 검토
 - 안건 1: <시장공감10> 출연자 의상 색상 관련 정치적 중립성 및 테마주 오해 방지
 - 안건 2: <오후장 작전타임> 출연자(어드바이저)의 과도한 존칭 사용 개선

[회의 내용]

○ 박호진 위원장: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제1차 시청자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. 오늘은 시청자 불만 처리 대응의 일환으로 증권 방송에서 제기된 주요 민원을 검토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.

■ 안건 1: <시장공감10> 출연자 의상 색상의 정치적 중립성 및 오해 방지

○ 조은아 위원: 최근 <시장공감10> 출연자가 특정 정치적 색깔을 연상시키는 의상을 착용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. 증권 방송의 특성상 의도치 않은 색상 선택이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 테마주와 연관된 '시그널'로 시청자들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습니다.

○ 서성완 부위원장: 제작 현장에서 의상 선택 시 미처 고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합니다. 방송법 및 당사 심의규정에 따른 공정성 유지는 상시 지켜져야 할 가치입니다. 정치적 이슈에 민감한 시청자들이 많은 만큼, 출연자 의상 색상 선택에 있어 제작진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○ 구강모 위원: 특정 색상이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방송의 중립성과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향후 정치적 오해나 테마주 연상 가능성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출연자 코디네이션 가이드라인을 강화할 것을 권고합니다.

○ 박호진 위원장: 해당 의견을 수렴하여 보도 및 제작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.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상 관련 사전 체크 프로세스를 재점검할 것을 요구합니다.

■ 안건 2: <오후장 작전타임> 어드바이저의 과도한 존칭 사용 개선

○ 김윤정 위원: <오후장 작전타임>에 출연하는 주식 전문가(어드바이저)들이 시청자나 특정 종목을 지칭할 때 "님", "시-" 등의 극존칭을 남발하여 듣기 거부하다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.

○ 임수신 위원: 전문가로서의 권위나 정보의 전달력보다는 시청자의 비위를 맞추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. 이는 방송 언어 규범에도 어긋나며 콘텐츠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.

○ 이호섭 위원: 외부 전문가들이 방송 언어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입니다. 편성제작국 차원에서 출연 전 방송 용어 교육과 적절한 높임법 사용에 대한 사전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.

○ 박호진 위원장: 시청자 불만이 제기된 만큼, 출연 전문가들에게 올바른 방송 언어 사용을 강력히 권고해 주십시오. 특히 과도한 존칭은 지양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담백한 언어 사용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5. 결정 사항 및 향후 계획

- 안건 1 관련: 제작부서는 정치적 오해 및 테마주 연상 방지를 위한 출연자 의상 색상 체크 리스트를 작성하여 상시 시행할 것.
- 안건 2 관련: 외부 어드바이저 대상 방송 언어 가이드를 배포하고,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것.
- 기타: 본 회의록은 운영 규정 제7조 4항에 따라 머니투데이방송 홈페이지에 공개함.

6. 폐회: 위원장이 폐회를 선언함. (오후 3시 30분)